

# 대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

권말숙<sup>1</sup>, 이정화<sup>2\*</sup>

<sup>1</sup>경운대학교 간호대학, <sup>2</sup>경북대학교 간호대학

## Study of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 and Attitude towards the Disabled

Mal-Suk Kwon<sup>1</sup>, Jeong-Hwa Lee<sup>2\*</sup>

<sup>1</sup>College of Nursing, Kyungwoon University

<sup>2</sup>Doctoral Student, College of Nurs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은 D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학년을 고려하여 같은 비율로 목적유층표집을 실시한 794명이며, 수집된 자료는 t-test, one-way ANOVA, Scheffè test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장애인은 복지·생활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며, 국가나 지역사회가 돌봄의 주체가 되고, 장애의 정도나 종류에 따른 특수학교나 일반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거주지역내 특수학교 설치에 교육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인식하는 대학생이 많았다. 정보수집 경로는 매스컴을 통해서, 인식개선은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장애인을 지원하는 방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영역별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감정적·행동적·인지적·교류적 태도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전공계열, 성별, 학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정립과 긍정적 태도를 확립하는 방안 마련에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rvey the perceptions and attitudes of university students towards the disabled. The subject's were 794 students from "D" University.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a t-test, one-way ANOVA, Scheffè Test. For the disabled daily life and care-givers, many students considered that the disabled needed to be cared for by the government or public organizations. The students also considered that there would be no adverse effects on education if there was a special school in their village. They collected information related to the disabled from mass communication. They came up with government support being the most effective way of improving the awareness of the disabled. The specific positive attitudes about the disabled were as follows: emotional, behavioral, cognitive, and interchange. The attitudes for the disabled people showed a difference according to gender and grade.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the perception and attitudes can be established based on the information collected.

**Key Words** : Attitude, Disabled, Perception, University Students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은 2012년 252만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약 5%이고, 선천적 장애보다 후천적 장애가 90%

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1].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현대 사회 고령화, 사회참여 확대 등을 통한 산업재해 및 교통사고 증가, 장애유형 확대, 각종 희귀난치질환 증가 등으로 향후 장애 인구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Corresponding Author : Jeong-Hwa Lee(Kyungpook National Univ.)

Tel: +82-55-940-5196 email: awljeong@naver.com

Received February 11, 2014

Revised (1st March 10, 2014, 2nd March 25, 2014)

Accepted June 12, 2014

이와 같이 장애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부정적이며[2], 신체적 장애를 마치 정서·심리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건강한 사람과 다른 부족한 존재로 생각하여,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과 같이 대우하려는 경향이 있다[3,4].

10명중 9명에 해당하는 후천적 장애인도 생애주기 어느 시점까지는 비장애인이었고, 현재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 문제는 장애인 본인과 그 가족의 문제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우리사회에 만연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소외계층으로서의 직·간접적 차별, 낮은 국민의식으로 인해 이들의 인권까지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현실적 제한요건으로 지속적인 사회활동 유지가 어려운 경우도 많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5] 결과에서, 80.7%의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장애에 대한 차별이 전체적으로 많다”고 응답하였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어졌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6]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최우선이라고 지적하였는데, 이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역할 설정을 제거하여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되면 부정적인 태도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왜곡된 행동들이 나타나게 된다[7].

장애인 복지의 궁극적 목표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이고, 이들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고 사회통합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4].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에게 어떤 태도를 보여주는지에 따라 그들의 삶의 질은 변화될 수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 및 인식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장애인 복지의 최종 목적인 사회통합이 불가능하다고 본다[8].

현정숙[9]은 일반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아동기나 청소년기의 학습경험을 통해 형성되며, 가장 직접적으로 장애인 문제에 관한 영향을 받게 되는 세대는 바로 지금의 청소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래 장애인

문제를 책임져야 할 지금의 청소년들이 장애인에 대해 어떠한 인식과 태도를 갖느냐 하는 것은 향후 장애인의 복지 방향과 정책 결정은 물론 사회통합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대학생은 개인 발달단계상 후기 청소년기와 초기 성인기에 해당하는 시기로 자신을 정립하여 미래 삶의 방향을 계획하고, 사회로 나아갈 준비를 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이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장애인 인식과 태도에 관한 선행연구는 198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고, 1990년대는 아동과 청소년, 장애 자녀를 둔 부모와 가족, 교사를 대상으로, 2000년대는 중·고등·대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조사하는 연구를 주로 시행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최근 국내·외 선행연구는 장애인의 사회 통합과 관련한 사회지도층, 교사, 사업주, 공무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실증적으로 파악하는 연구들로 이어지고 있다[4,10].

국내에서 연구된 대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학생들의 장애에 대한 고정관념 분석[11],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연구[12], 대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13-15], 장애인에 대한 태도 측정도구의 타당도 검증[16]과 장애인 대상 자원봉사활동[17], 대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접촉경험[18] 등 특정 부분을 결정하는 요인을 중심으로 한 연구에 그치고 있고,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 시킬 수 있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태도를 조사함으로써 향후 대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정립과 긍정적인 태도를 확립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조사하고자 함이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은 D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학년을 고려하여 같은 비율로 목적유층표집을 실시하여 총 813명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 동의를 한 813명 중 부적절한 응답자 19명을 제외한 총 794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 2.3 연구도구

### 2.3.1 장애인에 대한 인식

본 연구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김인호[19]가 개발한 도구를 유창숙[10]이 재구성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장애인 거주여건, 장애인 돌봄, 장애인 교육환경, 장애인 특수학교설치, 장애인 정보수집 경로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방안으로 총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2.3.2 장애인에 대한 태도

본 연구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Siller[20]가 개발한 DFS(disability factor scale)를 현정숙[9]이 번안하고 유창숙[10]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인지적 태도’ 요인 11문항, ‘감정적 태도’ 요인 8문항, ‘교류적 태도’ 요인 3문항, ‘행동적 태도’ 요인 2문항으로 총 4영역 2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절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낮을수록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현정숙[9]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89, 유창숙[10]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78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77이었다.

## 2.4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3년 5월 13일부터 2013년 6월 7일까지 실시되었다. 연구자가 직접 대상자에게 연구의 취지와 목적, 익명성의 보장, 연구 참여자로서의 권리 등을 설명하고, 자의적으로 연구 참여에 수락한 자에게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은 후 설문지를 배부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 응답에는 약 8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PASW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과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실수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t-test, one-way ANOVA로 분석하고, Scheffè test로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 2.5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일개 대학 일부 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이므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 시키는데 주의가 필요하다.

## 3. 연구결과

###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전공계열은 자연계열이 46.2%, 성별은 여자가 59.6%, 연령은 20세 이하가 81.1%, 학년은 1학년이 50.4%, 종교는 무교가 60.2%, 경제 상태는 중간정도가 90.9%로 가장 많았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794)

Variables	Category	n	%
Difference	Natural Science	367	46.2
	Humanities Sociology	120	15.1
	Artistic Physical Education	154	19.4
	Engineering	153	19.3
Gender	Male	321	40.4
	Female	473	59.6
Age	≤20	644	81.1
	21-22	103	13.0
	23-24	34	4.3
	≥25	13	1.6
Grade	First grader	400	50.4
	Second grader	290	36.5
	Third grader	104	13.1
Religion	Protestant	114	14.4
	Catholic	37	4.7
	Buddhism	137	17.3
	Irreligion	478	60.2
	Others	28	3.5
Economic Status	High	14	1.8
	Medium	722	90.9
	Low	58	7.3

### 3.2 대상자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대상자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장애인 거주여건에 대해서는 ‘복지시설이나 생활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많다(68.8%)’고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이 많다(31.2%)’고 한 경우보다 많았다. 장애인은 누가 보살펴야하는지에 대한 의견인 장애인 돌봄 주체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역사회가 보살펴야 한다(58.8%)’고 답변한 경우가 ‘가족이 돌보아야 한다(41.2%)’고 답변한 경우보다 많았다. 장애인의 교육환경에 대한 인식은 ‘장애의 정도나 종류에 따라서 특

수학교나 일반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좋겠다(68.5%)'고 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장애정도와 상관없이 장애아동만 따로 모아서 교육시키는 것이 좋겠다(17.4%)', '일반학교에서 함께 교육받는 것이 좋겠다(14.1%)'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 동네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 설치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교육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68.6%)'라고 답변한 경우가 과반수 이상 이었고 '모르겠다(21.3%)', '교육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10.1%)'로 나타났다. 정보수집 경로는 장애인과 관련된 정보를 어떤 경로를 통해 알게 되었는가에 대한 것으로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 매스컴을 통해서(59.2%)'가 가장 많았고, '학교에서 장애인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15.7%)', '봉사활동 또는 장애인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12.5%)', '이웃이나 친구들을 통해서(4.5%)', '기타(4.4%)', '집안에서 장애인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3.7%)'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인식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장애인 지원(36.7%)'이 가장 많았고, '매스컴을 통한 교육 및 홍보(23.9%)',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21.3)', '성공적인 장애인 사례 부각(18.1%)' 순이었다[Table 2].

[Table 2] The specific perceptions toward the disabled (N=794)

Variables	Category	n	%
Daily life	Welfare facilities and plenty of people living in living facility	546	68.8
	Plenty people living with the family	248	31.2
	Care-giver		
	Country or community	467	58.8
	Family	327	41.2
Environment of education	It is good to get together with general school education	112	14.1
	Children with disabilities, regardless of disability, but it is good to educate collected separately	138	17.4
	Depending on the type and degree of disability in special schools or in school	544	68.5
Special school	Will have a negative impact on education	80	10.1
	Will not adversely affect educational	545	68.6
	unknown	169	21.3
Intelligence	TV, radio, newspapers,	470	59.2

collection	magazines, and through the mass media		
	Education for the disabled in schools	125	15.7
	Education for the Disabled in the house	29	3.7
	Through neighbors and friends	36	4.5
	Through volunteer work, or any related organizations	99	12.5
Recognition improvement	other	35	4.4
	Through the media training and publicity	190	23.9
	Highlight successful practices Disabled	144	18.1
	Accessibility of aggressive government	291	36.7
	Initiative of community leaders	169	21.3

### 3.3 대상자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

#### 3.3.1 대상자의 영역별 장애인에 대한 태도

대상자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5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균점 2.57점이었으며, 하위영역별 태도는 '감정적 태도' 영역이 2.36점으로 가장 긍정적이었으며 '행동적 태도' 영역이 2.45점, '인지적 태도' 영역이 2.68점, '교류적 태도' 영역이 2.78점 순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The specific attitudes toward the disabled (N=794)

Variables	M	SD
Cognitive Attitude	2.68	.44
Interchange Attitude	2.78	.45
Behavioral Attitude	2.45	.66
Emotional Attitude	2.36	.78
Total	2.57	.46

#### 3.3.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전공계열(F=23.092,  $p < .001$ ), 성별( $t = -3.478$ ,  $p = .001$ ), 학년(F=7.748,  $p < .001$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전공계열별 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사후검정 결과 인문계열이 자연계열, 예·체능계열, 공학계열보다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가 여자보다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년별 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사후검정 결과 1학년이 2학년보다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4]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according to the attitude towards the disabled

(N=794)

Variables	Category	M±SD	t or F	Schffe	p
Difference	Natural Science <sup>a</sup>	2.63±.42	23.092	a,b,c>b	<.001
	Humanities	2.26±.48			
	Sociology <sup>b</sup>	2.58±.43			
	Artistic Physical Education <sup>c</sup>	2.63±.46			
	Engineering <sup>d</sup>	2.49±.48			
Gender	Male	2.61±.43	-3.478		.001
	Female	2.58±.46			
	≤20	2.55±.44			
Age	21-22	2.47±.50	1.293		.275
	23-24	2.39±.45			
	≥25	2.51±.49			
Grade	First grader <sup>a</sup>	2.64±.42	7.748	a<b	<.001
	Second grader <sup>b</sup>	2.60±.41			
	Third grader	2.54±.47			
Religion	Protestant	2.63±.42	.494		.740
	Catholic	2.60±.46			
	Buddhism	2.56±.45			
	Irreligion	2.51±.58			
	Others	2.78±.13			
Economic Status	High	2.57±.46	1.705		.182
	Medium	2.54±.44			
	Low				

#### 4. 논의

본 연구는 대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태도를 조사함으로써 향후 대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정립과 긍정적인 태도를 확립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장애인 거주여건은 복지시설이나 생활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보다 많다고 인식하였고, 장애인 돌봄 주체는 가족보다는 국가나 지역사회가 돌보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이 결과는 본 연구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대학생의 인식과 태도를 측정된 유창숙[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장애인이 평범한 일상 속에 흡수되어 생활하는 이웃사촌이기보다는, 더불어 생활함이 불편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결과라 생각된다. 또한 장애인은 건강상 취약한 계층이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집단이기 때문에 이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정책을 범정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교육환경은 장애정도와 상관없이 장애아동만 따로 모

아서 교육시키는 것과 일반학교에서 함께 교육받는 것이 좋겠다고 한 경우보다 장애 정도나 종류에 따라서 특수학교나 일반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좋겠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이는 현정숙[7]과 Vignes 등[21]의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5]에서 장애인의 학교생활 중 49.2%가 또래 학생으로부터 사회적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함과 일맥상통하는 이 결과는 일반학교 통합교육 환경 구성원의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 부족과 편견이 함축된 결과라 생각되며, 일반학교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 인권 교육 및 장애 인식 개선을 통해 사회적 거리감을 줄이고, 통합교육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필요성이 있으며, 장애학생의 장애유형 및 배치기관에 따른 다양하고 적절한 특수학교 지원체계가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장애대학생 교수-학습 지원을 위한 도우미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대상자의 동네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 설치에 교육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하는 인식이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정숙[9], 유창숙[10]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여 특수학교 설치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과 관련된 정보수집 경로는 학교, 집안, 이웃이나 친구들, 봉사활동 또는 장애인 관련 단체를 통한 교육을 통해서 보다는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 매스컴을 통한 정보수집이 많았다. 이 결과는 장애인에 관련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수업이 일반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보고한 오아라 등[22]과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적 통합을 위해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의 양적 증가도 중요하지만, 관점과 표현의 다양한 전달 방법에 대한 중요성도 시사한 최이정[23]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정보화 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경험하는 다양한 변화의 결과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시대적 흐름에 맞게 스마트폰과 같이 대량 정보를 신속히 전달·교환하는 소통의 수단이자 사회적 활동 공간으로 자리 잡은 다기능 매체로서의 뉴미디어를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장애인 인식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장애인 지원이 가장 많았고, 매스컴을 통한 교육 및 홍보,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 성공적인 장애인 사례

부각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나 편견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가 최근 지역사회 내 재할 기관과 특수학교를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한 강용주 등[24]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하지만, 장애인식 교육 대부분이 강의식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장애 인식개선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보고한 만큼[24], 정부에서는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장애인식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대상자의 영역별 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5점 만점에 전체 평균평점 2.57점으로 현정숙[9]의 대전지역 중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 연구결과 3.21점에 비해 다소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별로는 감정적 태도가 가장 긍정적이었으며 행동적 태도, 인지적 태도, 교류적 태도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직접 비교 분석할 선행연구가 없어서 동일 도구에 의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은 전공계열, 성별, 학년이었다. 전공계열별 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사후검정 결과 인문계열이 자연계열, 예·체능계열, 공학계열보다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장애대학생에 대한 비장애 대학생의 인식과 태도를 연구한 김진영과 남진열[2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대학생의 전공계열에 따른 장애인의 태도가 자연계열, 인문-사회계열, 사범계열 순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한 김민정[14]의 연구결과와는 부분적으로 유사하였고 특수교육 관련 교과목 수강 경험이 많을수록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는 최원희[26]의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태도 함양을 위해서 특수교육 관련 교과목을 필수 교과목으로 지정하거나 교양 교과목으로 선택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성별은 남자가 여자보다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긍정적이라는 윤영미[27]의 결과와는 일치하였지만, 여성이 남성보다 더 수용적이고 모성애가 깊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심리적인 방향으로 쉽게 반응하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보다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한 Griffin 등[28]과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유럽 3개국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한 Hampton & Zhu[29]의 결과와는 상반되었다. 또한, 김정

민과 송수지[15], 김진영과 남진열[25]의 연구에서는 장애인 수용 태도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를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성별에 대한 태도는 각 문화권 속에서 이해되어야함이 바람직하며, 추후 성별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관한 원인 규명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학년별 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사후검정 결과 1학년이 2학년보다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년이 낮을수록 장애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다는 유창숙[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정보교육과 경험이 많을수록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행동의도가 긍정적임을 보고한 박준성 등[30]의 연구결과와 조사에 참여한 대학생 중 3.4학년이 1.2학년에 비해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난 김민정[14]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이 결과로 볼 때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긍정적 전환을 위해서는 대학생들의 장애인 관련 교육이나 프로그램도입시기의 적절성,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지속적 연결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로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자연스럽게 함양되어질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조사함으로써 향후 대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정립과 긍정적인 태도를 확립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은 D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794명이었으며 자료 수집은 2013년 5월 13일부터 6월 7일까지 하였다.

연구도구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사용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PASW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Scheffè test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거주여건에 대해서는 '복지시설이나 생활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많다(68.8%)' 돌봄 주체는 '국가나 지역사회가 보살피는 것이 좋겠다(58.8%)', 교육환경은 '장애의 정도나 종류에 따라서 특수학교나 일반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좋겠다

(68.5%)', 특수학교 설치는 '교육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68.6%)', 정보수집 경로는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 매스컴을 통해서(59.2%)', 인식개선 방안으로는 '정부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장애인 지원(36.7%)'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상자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5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균평점 2.57점이었으며, 하위영역별 태도는 감정적 태도(2.36점)가 가장 긍정적이었고 행동적 태도(2.45점), 인지적 태도(2.68점), 교류적 태도(2.78점)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전공 계열(F=23.092, p<.001), 성별(t=-3.478, p=.001), 학년(F=7.748,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인문계열이 자연계열, 예·체능계열, 공학계열보다, 남자가 여자보다, 1학년이 2학년보다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본 연구가 일개 대학 일부 학과 대학생에 한정되어서 모든 대학생을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대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조사함으로써 대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정립과 긍정적인 태도를 확립하는 방안 마련에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 대상자 수와 지역적 범위를 확대하여 대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비교 분석해 볼 것을 제언한다.

둘째, 대학생 및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더욱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 References

[1] [http://www.mw.go.kr/front\\_new/jc/sjc0112mn.jsp?PAR\\_MENU\\_ID=06&MENU\\_ID=06120102](http://www.mw.go.kr/front_new/jc/sjc0112mn.jsp?PAR_MENU_ID=06&MENU_ID=06120102), 2013.

[2] Shannon, C. D. & Schoen, B. & Tansey, T. N., "The effect of contact, context, and social power on undergraduate attitudes toward persons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Rehabilitation*, 75(4), pp. 11-18. 2009.

[3] H. K. Jeong & M. H. Kim, "Attitudes of Physicians and Nurses toward with Disabled Person", *The Korean Journal of Rehabilitation Nursing*, 7(2), pp. 213-219, 2004.

[4] Naamia, A. & Hayashib, R., "Perceptions About Disability Among Ghanaia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Social*

*Work in Disability & Rehabilitation*, 11, pp. 100-111, 2012. DOI: <http://dx.doi.org/10.1080/1536710X.2012.677616>

[5] S. H. Kim. & S. J. Kwon & D. U. Kang & S. H. No & M. K. Lee & S. H. Lee., "A Study of developing consumer-directed disability policy -In-depth study on National Survey of the Disabled Persons, 2011-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IHASA)", 2012.

[6] [http://15775364.or.kr/bbs/board.php?bo\\_table=B61&wr\\_id=1](http://15775364.or.kr/bbs/board.php?bo_table=B61&wr_id=1), 2013.

[7] E. Y. Choi. & Y. S. Song., "The Effect of a Simulated Disability Exercise Program on Attitude and Stereotyping toward People with Disabilities by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19(4), pp. 527-534, 2007.

[8] J. A. Mo., "Awareness of Disabled Person and Analysis of Factors Related to the Awareness among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Rehabilitation Nursing*, 14(1), pp. 32-38, 2011.

[9] J. S. Hyun., *Perceptions and attitudes of middle school students Disabled*, in Daeje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jeon University, 2012.

[10] C. S. Yu., *A Study of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 and Attitude of the Disabled*.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gju National University, 2012.

[11] H. Y. Lee., "The Study of University Students's Stereotypes toward Disability",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4(2), pp. 67-85, 2003.

[12] Y. S. Kim. & J. K. Yang., " An Study on the Factors of Social Distance Perceived between the Handicapped and Non-handicapped Undergraduates under the Integration Education Environment",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9, pp.221-245, 2011.

[13] H. S. Kang. & K. J. Cho. & E. S. Ji. & M. H. Jang. & K. H. Lee. & E. Y. Choi. & Y. A. Song. & J. M. Chang. & K. J. Lee. & S. Y. Kim. & K. H. Yu., "Factors Affecting College Students' Attitudes Toward the Disabled", *The Korean Journal of Rehabilitation Nursing*, 6(2), pp. 164-172, 2003.

[14] M. J. Kim., *A Research on non-special Education Majors' Attitude of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gju National University, 2012.

[15] J. M. Kim. & S. J. Song., "The effect of factors on the university students' acceptive attitude toward the disabled",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Theory and Practice*, 3(2), pp. 83-99, 2008.

[16] E. K. Shin. & H. N. Lee., "Validation of the Scale of Attitudes towards Disabled Person(SADP and ATDP-O)

in Korea",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3(1), pp. 267-289, 2011.

[17] S. A. Kang. & S. H. Seo. & S.W. Cho., "Motivation and Satisfaction of the University Student Volunteers in Sports Event for the Disabled", *Journal of Korean Physical Education Association for Girls and Women*, 24(5), pp. 125-139, 2010.

[18] K. S. Kim. & Y. H. Park. & B. S. Lee. & J. Y. Kim., "Comparison of the Attitudes Toward and Contact with Disabled Person among Health Care Professionals, Lay Persons, and Disabled Persons". *The Korean Journal of Rehabilitation Nursing*, 13(1), pp. 13-22, 2010.

[19] I. H. Kim, *A Study on College Student's Awareness of the Disabled*.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2002.

[20] Siller, J., *Attitudes of the non-disabled toward the physically disabled*. NY: New York University. 1967.

[21] Vignes, C., Godeau, E., Sentenac, M., Coley, N., Navarro, F., Coley, N., Navarro, F., et al. "Determinants of students' attitudes towards peers with disabilities" *Developmental Medicine and Child Neurology*. 51(6), pp. 473-479, 2009.  
DOI: <http://dx.doi.org/10.1111/j.1469-8749.2009.03283.x>

[22] A. R. Oh. & J. H. Lee. & J. H. Eom., "Effects to Teenagers' Attitude Regarding the People with Disabled from TV Documentary Programs Related to Adapted Physical Education",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46(1), pp. 981-990, 2011.

[23] L. J. Choi., "An Experimental Study on Effects of TV Program about Disabilities on College Students' Attitude to the Disabled Person", *Journal of communication research*, 46(2), pp. 67-99, 2009.

[24] Y. J. Kang. & J. K. Park. & H. S. Jin., "EDI Hang-dong Program Development", *Disability & Employment*, pp. 1-6. 2008.

[25] J. Y. Kim. & C. Y. Nam., "A study on non-disabled university student's attitudes toward the university student with the disabilitie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2(4), pp. 39-58, 2005.

[26] W. H. Choi., "Effect of Welfare Theory for the Disabled as One of General-Education Courses on the Attitude of University Students toward the Disabled: the case of K University students taking the course",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12(1), pp. 160-184, 2008.

[27] Y. M. Yoon., "Attitude Towards with People Disabilities and Improvement Desire for Campus Welfare Environment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community Development*, 37(2), pp. 81-96, 2012.

[28] Griffin, M. M., Summer A. H., McMillan, E. D., Day, T. L., Hodapp, R. M., "Attitudes Toward Including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t College", *Journal of Policy and Practice in Intellectual Disabilities*, 9(4), pp. 234-239, 2012.  
DOI: <http://dx.doi.org/10.1111/jppi.12008>

[29] Hampton, N. Z., Zhu, Y., "Gender, Culture, and Attitudes Toward People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Journal of Applied Rehabilitation Counseling*. 43(3), pp 12-19, 2011.

[30] J. S. Park. & U. C. Kim. & J. H. Han., "Perception of university student's attitude and behavior intention towards people disabilities",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pp. 146-147, 2005.

**권 말 숙(Mal-Suk Kwon)**

**[정회원]**



- 1996년 8월 : 대구한의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보건학석사)
- 2006년 2월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 공중보건학과 (보건학박사)
- 2004년 3월 ~ 2013년 8월 : 대구과학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3년 9월 ~ 현재 : 경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성인간호, 간호교육, 응급·재난교육

**이 정 화(Jeong-Hwa Lee)**

**[정회원]**



- 2003년 8월 : 경상대학교 간호대학(간호학석사)
- 2013년 3월 ~ 현재 : 경북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 박사과정)
- 2012년 3월 ~ 2013년 2월 : 대구과학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성인간호, 노인간호, 간호정보